

완도군, 효성그룹·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협약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1.59㎢ 바다숲 조성

완도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2027년까지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해조류, 해초류(잡피) 등을 이식해 복합 숲 1.59㎢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3억으로 50%는 국비, 50%는 효성그룹에서 투자하며, 사업 수행은 효성그룹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함께 한다.

이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 실천’ 업무 협약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유인정 효성그룹 전략본부 상무, 장욱진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바다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기여와 블루카본 기반 확대 및 생물 다양성 보전 ▲바다숲의 중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바다 식목일의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완도군에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의 예산이 투입돼 총 6개소(청산 모서, 청산 모동, 청산 소모도, 금일 충도, 금일 황제도, 청산 청계)에 약 6.98㎢의 바다숲이 조성돼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완도군은 최근 군청에서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함께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보성군, 제11회 송재문화제

보성군은 최근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 창립 등 활동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에 평생을 바친 송재 서재필 선생을 기리는 제11회 송재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1회 송재문화제’는 송재 서재필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채)와 심헌문화재단(이사장 박치영) 주관으로 열렸으며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협회의 창립 등 조국의 자주독립에 평생을 바친 보성군 문덕면 출신인 송재 서재필 선생 추모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행사는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렸으며, 서재필 선생 탄생 160주년 기념 및 서거 73주기 추모제로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달성서씨 종친, 성주이씨 종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추모 헌정 공연을 시작으로, 헌공다례, 헌화 및 분향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남광교회 윤대원목사님의 회주모기도, 봉갑사 각안주지스님의 추모독경, 추모헌시 낭송에 박연정, 김남용 전남동부보훈지처장의 추모사, 김철우 보성군수 추모사 순으로 마무리됐다.

/강중수 기자

해남, 재정집행 4회연속 행안부 ‘최우수’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며, 4회연속 ‘최우수’ 평가를 기록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1조 2천180억원의 재정을 운용해 1조 313억원을 집행, 84.3%의 집행율을 달성했다.

특히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최대 지방재정 규모를 가졌음에도 집행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군정이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이래 6년연속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또한 높여져 2023년 하반기 평가를 포함해 행안부 평가 4회 연속 최우수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

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의 선금 지급과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 확대를 극대화했다.

이번 재정집행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하반기 목표액 1,615억 원 대비 706억을 초과 집행, 144%의 집행률을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재정집행 최우수 평가는 일하는 군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결과로,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함은 물론 주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나섰다.

군은 가사도, 관매도, 조도 등에 거주하며 농기계 수리에 불편함을 겪는 도서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와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11일 조도 육동, 신전, 읍구마을 대상으로 육동마을회관을 방문해 농기계 수리와 현장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순회 수리·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소형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비 최대 2만원까지를 무상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을 맞아 도서지역 농민들의

영농편의와 현장실무 기술교육으로 자가정비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한다”라며 “농기계 수리·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관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고장으로 도서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은 오는 1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장흥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4월 19일부터 7월까지 가정에서 요양 중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재가암 자조모임은 환자와 가족 간에 암 극복 사례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우울증, 불면증 관리교육 ▲아로마테라피 ▲웃음치료교실 ▲항암 발효식초 만들기 ▲마음건강치유센터 힐링프로그램 체험(헤어스파, 항암 약죽, 온열테라피, 뜸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

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약 1/3은 완치가 가능하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환자를 위한 암정보 교육과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여는 061-860-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두연 기자

고흥, 귀향귀촌 설명회 열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서울에서 재경 과역면 향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행 예정인 전입자 유치 유공 출향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2도 5촌’(2일은 도시에서 5일은 농촌에서 생활)의 설명,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방안, 그리고 응급 의료체계 유지 등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소개됐다.

군은 귀농귀촌 박람회 참여, ‘고흥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최종민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자연공포면 회동리곡성상 수상작